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선거사무실로 찾아온 지지자들과 민선 7기 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후 조선포에서 학생들과 청년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이병훈 전 예비후보와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전남, 김영록·신정훈 정체성 공방 광주, 대세론 vs 단일화 한판 대결

민주당 전남지사·광주시장 후보 경선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공방이 가열되고 광주시장 당내 예비후보 3인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전남지사=장만재 후보의 입당을 놓고 '장만재' 대 '김영록·신정훈'이 격돌했다. 이젠 '문재인 마케팅'을 놓고 '신정훈' 대 '김영록' 후보가 정체성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다툼을 예고하는 등 확정되는 모양새다.

신정훈 전남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9일 대변인 논평에서 "2016년 문재인 당 대표 심장을 저격한 김영록을 기억한다"며 김영록 후보를 비난했다.

신 후보 측은 "김 후보는 현수막과 명함 예비후보물까지 온통 문재인 대통령으로 도배했다"며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고 비교했다.

신 후보 측은 "2016년 1월 당시 김 후보는 수석대변인직 사퇴와 함께 탈당 및 안철수 신당 참여를 검토하는 등 반(反) 문재인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김 후보를 '문재인 심장을 저격한 저격수'라고 지칭했다.

앞서 신 후보는 지난 3일 김 후보가 이른바 '대세론'을 허위로 주장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김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맞춰 추미애 당 대표 등이 보낸 축하 영상을 지지 선언으로 표현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여론을 포장했다는 것이다.

신 후보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며 "경선이 시작되는 5월 13일 전 민주당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후보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

신 "文 심장 저격한 저격수" 김 "1위 후보로 감수할 부분"

'문재인 마케팅' 놓고 신경전

이용섭, 이병훈 후보 영입

강기정, 정책연대 쟁점

양향자 "새로운 광주 필요"

고 "경선이 압박하면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가 날로 거세지만 정책 선거,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정책경선·공명 경선을 거듭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 측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후보로서 (정치공세를) 일정 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그러나 정체성 문제 제기 등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동지로서 신 후보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본인의 여러 문제를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두 후보의 날 선 공방에 장만재 후보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에는 장만재 후보의 민주당 입당을 놓고 신정훈·김영록 후보가 공동전선을 형성하며 장 후보의 정체성을 공격했다.

◇광주시장=이용섭 후보는 최근 본격 경선에서 10% 감산 페널티를 받으면서 흔들리는 '대세론'을 다잡기 위해 같은 당 경쟁자였던 이병훈 후보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고삐를 쥐고 있다. 또

강기정 후보도 민행배·최영호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이들 후보와의 정책 연대에 나섰다. 양향자 후보도 자신을 미래·새로움·변화의 대변자로 내세우면서 표발을 다지고 있다.
9일 강기정·양향자·이용섭 세 후보는 오는 18~20일 경선을 앞두고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강기정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행배·최영호 전 후보의 좋은 공약들을 참조했다"면서 "민행배·최영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그동안 구정장으로서 광산구와 남구에서 시행했던 주택보증금 등 좋은 정책들을 광주시민공동체에서 정책공약으로 내놨다"고 밝혔다. 또 강 후보는 "단일화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당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좋은 공약과 좋은 정책으로 시민과 당원에 다가가 선거에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후보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는 미래·새로움·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완전히 새로운 광주가 필요하다면 양향자가 유일한 답이다"고 자신의 장점을 내세웠다. 양 후보는 "변화가 필요하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관료나 정치인 중에서 시장을 선택해야 한다. 경험이 많고 광주를 잘 이끌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면서 "강기정 후보로는 이용섭을 이끌 수 없고, 이용섭 후보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일 뿐 광주시민의 승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용섭 후보는 이병훈 전 후보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경선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용섭 후보와 함께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나선 이병훈 전 후보는 "이용섭 후보야말로 광주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이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용섭, 전두환 청와대 근무 행적 밝혀라"

강기정 캠프 "사정수석실 근무 사실이 왜 가짜뉴스인가" "광주시민 지방선거 알권리 위해 성실한 답변이 도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67) 광주시장 예비후보를 둘러싼 '전두환 부역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5·18 유혈 진압을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부의 청와대에서 받은 훈장, 비서실 근무, 국비 유학 등이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성명을 내 "가짜뉴스, 불법행위"라고 규정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54) 예비후보 측은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 후보 측 정진욱 대변인은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후보는 시민이 제기하는 '전두환 부역' 의혹을 흑색선전으로 규정짓지 말라"고 주장했다.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두환 부역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 움직임이 거세지자 이 후보 측이 지난 8일 '가짜뉴스', '이 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것',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추악한 행위'라는 논평을 발표한 데 대한 정면대응인 셈이다.

정 대변인은 "독일의 경우, 나치협력

역력이 드러난 현직 근무자는 곧바로 지위를 박탈했고 교사 등 교육 관련자는 해직, 일용직근무자라도 공직에 나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시민이 제기하는 의혹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에서 '사정 칼날'을 휘둘렀던 청와대 사정수석실에 30대 중반의 나이에, 5·18의 도화선이 됐던 전남대 출신으로 입성한 배경과 업무 내용 등에 대해 공개 답변 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와 관련 "당시 청와대 근무는 재무부장관의 파견 명령에 따른 것으로 저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없었다"며 "누구 못지 않게 담당하고 정의를 함께 공직생활을 보냈다고 자부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5·18 민주유공자단체 등에서는 시민의 자질검증 요구를 이 후보 측이 특별한 이유없이 '가짜뉴스' 또는 '유언비어'로 규정하는 것은 '시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5·18과 광주를 모욕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이 후보자의 이력은 지난 2003년 국회 국제성장후보자(이용섭)인사청문요청안에 명시돼 있어 일부에서는 "유권자인 시민을 되레 압박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2003년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985년 12월부터 1987년 6월까지 전두환 대통령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보다 앞서 전두환 집권 5년차인 1984년에는 전 대통령 명의의 녹조근정훈장을 받았고, 청와대 근무가 끝난 1987년 6월부터는 2년간 국비로 미국 미시간대에서 유학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 선거 과정에서도 일부 시민단체의 '전두환 부역' 의혹 제기 등에 "저는 5·18 당시 광주가 아닌 서울에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판받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취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서도 일각에서는 "전두환 집권 당시 20대 나이에 광주학생 진상 규명과 전두환 처벌을 외치며 분신 또는 투신자살한 표정 등 장기간·송광영·김의기 등 10여명의 열사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민주당 11~12일 광주서구갑 등 4곳 재보선 후보 공모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12일 광주 서구갑, 부산 해운대구,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갑 등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4곳에 대해서 후보를 공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거에 떠돌던 광주 서구갑 전략공천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애초 앞서 공모한 영암·무안·신안, 서울 송파·노원 등 재보선 지역 3곳에 대한 면접시사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공모가 확정되면서 후보 면접을 오는 16일 에 한 번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민주당은 공천심사를 통해 필요할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23~24일경 경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수공천이나 전략공천 지역도 이때까지 결정해 남북 정상회담(27일) 이전에는 이들 지역에 대한 공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전략공천을 하려고 하면서 후보 공모를 하는 것은 후보를 기망하는 것"이라며 "극히 일부 제외하고는 당 지도부 내에서 광주 서

구갑 전략공천이 사실상 소멸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 서구청장 후보 공천에서 현직 정장을 배제한 상황이어서 광주 서구 선거 나아가 광주 전체 선거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구갑 전략공천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략공천 가능성이 희박해지거나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후보 공모를 알리면서 경선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다. /박지경기자 jkpark

무안공항 출발

일본 기타큐슈, 마츠모토(나가노),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 봄의 시작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쭈우욱~

무안 ↔ 일본 기타큐슈 직항 전세기

2018년 5월 13일(일)부터 정기편 운항
화요일(3박4일) / 금, 일요일(2박3일)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1:00)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저렴한 아가가세 펜션 숙박(매주 일요일 출발)

북큐슈 2박3일 특가(아가가세 고급온천 펜션) **439,000원**~
아마구치 [실속] **699,000원**~ [홍격] **769,000원**~

직장인들을 위한 매주 금요일 출발

북큐슈 2박3일(고급료칸 1박) [실속] **749,000원**~ [홍격] **799,000원**~
아마구치 2박3일(료칸 1박) [실속] **769,000원**~ [홍격] **799,000원**~

여유있는 3박4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출발

[실속] 북 큐 슈 3박4일 **699,000원**~
[홍격] 북 큐 슈 3박4일 **799,000원**~
[실속] 아마구치 3박4일 **699,000원**~
[홍격] 아마구치 3박4일 **799,000원**~

※일본 여행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마츠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츠모토 관광]

2018년 5월 18일(금)부터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 - 마츠모토(13:10) / 마츠모토(13:30) - 무안(16:20)

[홍격] 나가노,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3일(고급료칸 숙박)
일요일 출발 **938,000원**(5/20) **1,038,000원**
금요일 출발 **998,000원**

[홍격] 나가노, 나고야,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4일(고급료칸 숙박)
화요일 출발 **1,198,000원**

★ 알펜루트 전코스 관광(실버 기간: 4/15-6/22)
(다테야마, 쿠로베 알펜루트 전 코스관광)

★★★ 일본 최고의 절경 북 알프스 관광 ★★★

★ 나가노현의 오오기사와역에서 다테야마역까지
케이블카, 고원버스, 로프웨이 등 산악루트를 이동하며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만끽하는 4시간의 산책코스
(※ 용장한 북알프스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신호타카 로프웨이 탑승 포함)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 5월 18일(금) 이후 쭈우욱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 요일은 준특급호텔 기준

[골드]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호이안·하트스프링
3박4일(화) **66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노팁·노옵션]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869,000원**~ / 3박5일(금) **969,000원**~

[노팁·노옵션] 하트스프링온천 + 바나산국립공원 + 호이안야경
3박4일(화) **869,000원**~ / 3박5일(금) **969,000원**~

※일본 여행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변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2004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기간 1년 기준, 여행저렴 기밀(예약비상: 1만원, 국내항공 5만원만), 관광진흥법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준비 기밀 업체 ※ 예약시 계약서 필수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예약)금,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배관료,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